

학내소통, '모바일' 바탕에 '공유·자발성' 이끌어내야

학내 소통 부족, 대안은?

김규래 기자 riarbfo41@khu.ac.kr

학내 소통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모바일 환경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신문에서 진행한 '미디어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내 뉴스를 접하는 방식에 응답자의 62.38%가 이동형 단말기를 이용해 본다고 답했다. 학교 소식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길 바라는지 묻는 질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라고 답한 비율이 41.19%에 달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이용시간은 응답자의 약 32.3%가 하루 61분 이상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학교가 앞으로 모바일 미디어를 적극 이용하는 방향으로 소통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교와 학생 간 새로운 소통 방식의 필요성은 최근 프라임 사업 준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소통 부족으로 많은 갈등이 야기됐고, 이는 결국 우리학교에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프라임 사업은 기존의 학문단위를 재조정하는 사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성원은 단연 학생이다. 하지만 대학 측은 사업 계획안이나 준비과정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대나무 숲이나 우리 신문 홈페이지에는 연속적인 불만의 의견이 게재됐다.

프라임 사업으로 드러난 소통부족 '최종 선정'에 영향 주었을 듯

프라임사업 계획안 제출 이후 미래정책원(미정원) 측에 국제캠 정원 이동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미정원 측에서는 자료를 공개한다면 이후 있을 대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에 공개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캠 자료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국제캠은 학과별 인원 변동이 크니 나중에 공개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과 내 인원 변동이 클수록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강조되지만, 대학본부는 소통을 거부한 채 프라임 사업을 진행할 뿐이었다.

우리 신문 설문조사에서 '프라임사업 최종탈락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표명이 필요 한지'를 묻는 물음에 87.66%, 1,272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우리대학 홈페이지는 여전히 데스크탑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이 불편하다.

대학 측은 60회 이상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양 캠퍼스에서 4차에 걸쳐 소통위원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여는 등 소통의 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가영(주거환경학 2014) 양은 "주변 사람들에게 '프라임 사업 간담회를 한다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뿐"이라며 "학교 측에서 했던 공지가 적극적이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정원 측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지를 올려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며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학내 소식을 전달할 때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http://www.khu.ac.kr>)를 주된 소통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모든 학내 공지가 게시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내 뉴스를 해당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확인하겠다는 답변은 불과 5.95%에 그쳤다.

지난 3월 2일 개강 이후부터 5월 19일까지 우리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사 공지 43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조회 수는 약 1,191 이었고, 같은 기간 게시된 434건의 일반 공지는 평균 조회 수가 약 293에 불과했다. 학

사 공지의 평균 조회 수는 일반 공지보다 조금 더 높았지만 우리학교 학생 규모가 약 2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지의 전달율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학교 웹 사이트는 모바일 페이지에 최적화 되어있지 않다. 이동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학내 소식을 접하려고 해도 PC 버전으로 웹페이지가 구동되기 때문에 편리한 열람이 어렵다. 모바일 중심으로 소통하는 요즘, PC 위주의 소통방법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안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소통 적극적인 페이스북 운영 요구돼

이러한 소통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측은 이동형 기기에 최적화된 소셜 미디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월 19일 기준 우리학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35,851명이 소식을 받아보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14,383명, 고려대학교 4,836명, 서강대학교 4,839명, 성균관대학교 21,005명, 중앙대학교 21,001명, 한국외국어대학교 20,399명 수준이다. 서울권 사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 페이지는 규모가 매우 큰 편에 속하며, 우리학교보다 큰 규모의 페이지를 운영하는 대학은 한양대학교뿐이다.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를 받아보는 인원이 35,851명이라는 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써 충분한 규모를 갖췄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게시되는 콘텐츠를 분석해 보면, 규모에 비해 소통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 까지 141일간 88개의 콘텐츠가 게시됐는데, 길게는 5일 간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또한 주요 게시물은 '희아띠랑'의 카드뉴스나 학내 행사 공지가 대부분으로, 게시물의 평균 '좋아요'는 약 98.1개, 평균 댓글은 약 10.1개에 불과했다. 페이스북 담당자는 "페이지에는 학내 행사 관련 소식을 주로 업데이트 한다"며 "희아띠랑이 취재한 카드뉴스나 때에 따라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서울권 주요 사립대 중 가장 큰 규모인 한양대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무려 53,384명이 소식을 받아보고 있다. 콘텐츠 게시 내용을 보면 우리학교보다 더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게시물은 110개로 게시물 개수만 비교하면 22개만 차이지만, 평균 좋아요가 232.5개, 평균 댓글 수는 18.5개로 우리학교보다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이경전(경영학) 교수는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언급하며 풀 미디어(pull media)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현재 미디어 이용 실태는 푸쉬 미디어(push media)와 풀 미디어(pull media) 개념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데, 푸쉬 미디어란 e-mail과 문자 메시지 등 소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송신해 대화를 시도하는 미디어를 뜻하며, 풀 미디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처

럼 상호작용해 소통을 끌어당기는 미디어를 말한다. 점차 푸쉬 미디어에서 풀 미디어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학교 측에서 푸쉬 미디어인 e-mail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매일 하루에 여러 건 학내 소식을 보낸다면 받는 학생 측은 거부감이 들고 스팸 처리하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풀 미디어인 SNS에 관련 소식을 게시한다면, 강제성을 띤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학생이 적다.

고질적인 소통부족 문제

이제는 변화 시도할 때

이 교수는 "페이스북 포스팅은 푸쉬 전략으로 도저히 할 수 있고, 풀 전략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인다"며 "A와 B가 SNS를 이용해 소통하다가 우연히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글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때 무의식적인 끌어당김, 즉 세렌디피티(serendipity)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학교 구성원 간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동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방식의 소통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교 측이 학생과 소통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적용대상 2016-1학기 현재 사회봉사 1, 2, 3을 수강신청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 (03학번 포함)이전 학생은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 과목명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 단계별로 이수해야 함 (ex: 사회봉사 2는 사회봉사 1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 이수구분 자유선택 (2016학년도부터 자유선택으로 변경)

● 학점체계 1학점(학기당 1학점, 재학 중 3학점까지 이수 가능)

● 이수절차

수강신청 → 인정되는 봉사활동 기관 검색 및 선정 → 사회봉사활동 ⇒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서류구비(봉사활동 확인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설문지 작성) ⇒ 정해진 기간 내 제출

● 학점인정 요소

봉사활동인정[중요]

교외기관

- 1365자원봉사.사포털(www.1365.go.kr) [안전행정부 산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보건복지부 산하], 서울동행프로젝트 (dongaeng.knu.ac.kr) [서울시] 중 등록 되었고, 활동 확인서를 상기 사이트에서 출력해 올 수 있는 기관에 반드시 한함.

- 봉사활동 확인서인증서는 반드시 상기 사이트에서 출력해 온 것만 인정됨.

* 봉사활동 시작전 봉사기관에 상기 사이트에서 활동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내기관

- 사전검토 및 협의된 아래 봉사활동만 인정
※ 국제교육원 한국어도우미, 입학관리처 모교방문단, 지구사회봉사단 봉사프로그램, 학생지원처(경희봉사단) 입학신도우미,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자연재해 복구활동, 장애우 생활도우미, 클린캡리스, 교내 캠페인, 교수학습지원센터 투디링 학습프로그램, 경희부속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도, 자연사박물관내 자원봉사, 경희의료원내 자원봉사, 후마니타스칼리지 실천교육센터 실천활동단, 후마니타스칼리지 신입생세미나 과목 멘토)

[교외기관 활동 중 상기 3개 사이트 등록 2곳에 한하여 활동을 인정하는 사유

→ 사회봉사카누너(club.knu.ac.kr/khusge) FAQ에서 확인!]

· 봉사활동인정기간 2015. 9. 1 ~ 제출일 전까지 활동한 실적

· 서류제출기간 2016.05.23.(월) ~ 06.03.(금) 오후 5시30분 마감

· 학점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1. 인정시간: 32시간 이상(32시간 이상도 1학점만 인정)

* 사회봉사 2, 3의 경우 (직전학기)사회봉사 1, 2에서 3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직전학기 초과시간은 당해학기로 인정되지 않음.
(예: 사회봉사 1에서 42시간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 받았을 경우) 비로 다음 학기에 사회봉사 2를 신청 하였을 때, 직전학기의 초과시간(10시간)은 당해학기로 이월 되지 않음)

2. 봉사활동을 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

3. 학점증은 '정당 4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됨. 단, 봉사인정기간(직전학기) + 수강 신청한 학기) 동안 최대 2장(총 8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함.'

* 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되므로, 아래 경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에 한학기(4시간)과 다른 봉사 시간을 한 경우, 총 11시간이 되므로, 3시간은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4. 재학, 휴학, 복학에 상관없이 2015. 9. 1일 이후에 한 봉사활동 부터 학점인정 가능

5. 한국어도우미는 서류제출기간 전 지구사회봉사단에서 국제교육원으로부터 학점인정 대상자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번 학기에 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모교방문단은 재학 중 1학점 학점인정 가능

7. 교내 봉사의 경우 봉사자는 활동 일자별로 시간을 기입하여(일 8시간 이내) 소속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복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꼭 지침하시기 바랍니다.)

8. 교외봉사는 반드시 인터넷(동행프로젝트, VMS, 1365)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상세내역"으로 "전체출결")

· 기타

1. 본과목은 P / F 과목입니다.

2. 사회봉사 과목은 연간체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14-학기부터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를 받았을 시 성적에서 자동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학점(평점)에는 영향 없음)

* 이수(P)를 위해서는 재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4. 2004학년 ~ 2010학년 학생이 사회봉사 1을 이수 할 경우 문화세계지도자영역(핵심교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2015학년도 가지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후미니티스킬리지에 문의바랍니다.

* 사회봉사 커뮤니티 및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에서 FAQ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직전학기 "서류제출안내 및 유의사항"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커뮤니티 : <http://club.knu.ac.kr/khusge>

-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 : <http://khgs.c.knu.ac.kr>

* 기타 문의사항 : 지구사회봉사단(생활과학대학 612호)으로 방문 또는 전화 02)961-0673, 2213~4 / e-mail : leehw53@knu.ac.kr(담당: 이현호 교수)